

애연가·애주가 쉰 목소리 길어지면 '의심'



암 바로 알기
두경부암

도움말 =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준희 교수

얼마전 한 인기 배우가 비인두암으로 투병 중인 소식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인두암과 두경부암이란 단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우리가 흔히 듣는 위암이나 대장암 등에 비해 비교적 생소한 두경부암은 이름만 들어서는 낯설지만 알고보면 매우 익숙한 우리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수 없는 부위에 생기는 암이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숨쉬기 위한 기관에 생기는 암영역을 두경부암이라고 하는데 뇌아래에서부터 가슴위까지 생기는 모든 암이 해당된다.

즉 갑상선암과 후두암, 인두암, 구강암(혀암), 침샘암(타액선암), 코암 등 코·입·목 부위에 발생하는 모든 암이 두경부암이다. 중앙암 등록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암발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후두암 발생건수는 1111건, 인두암 898건, 설암 712건, 구강암 654건 편도암 419건 등으로 2014년 암발생을 1위인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전체암종 발생빈도가 10위에 육

뇌아래서부터 가슴위까지 코·입·목부위 생기는 모든 암 총칭
흡연·음주 함께하면 발병률 20~30배...연 1회 내시경 검사를

박할 정도로 발병률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

◇두경부암의 발병 원인 = 두경부암 환자의 85% 정도가 흡연과 관련이 있을 만큼 흡연은 두경부암의 주요 원인이다. 흡연의 양과 기간에 비례해 2차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 또 과도한 음주도 인두암, 구강암 발생과 관련있으며, 특히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같이하면 암발생률이 20~30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인두암의 발생은 바이러스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의 약 15~50%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 Human papilloma virus 특히 16)가 중요한 위험 인자로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중이다. 이밖에 도 위 식도 역류질환, 방사선 및 자외선의 노출, 비타민이나 철분 결핍, 물리적 자극 등이 두경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두경부암의 종류로는 구강에 생기는 암을 구강암, 소리를 내는 기관인 후두에 생기는 암을 후두암이라고 하며, 인두(구강과 식도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에 생기는 암을 인두암이라고 한다. 인두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비인두암, 구인두암, 하인두암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비강 및 부비

동에 생기는 비부비동암,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및 소타액선에 생기는 침샘암, 그리고 갑상선암, 편도암, 혀암 등이 있다.

◇두경부암의 증상 = 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후두암은 쉰목소리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기침, 객혈, 체중감소, 구취, 목에 혹이 생기는 환자도 있다. 구강암은 구강안에서 피가 나거나 색이 변하고 궤양 등의 증상이 생긴다. 혀나 볼 점막, 입천장, 입술 등에 생긴 궤양이 3주 넘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 조직 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비인두암은 목에 혹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피가 섞인 콧물 및 한쪽 귀나 코가 막히는 증상도 대표 증상이다. 즉 담배를 피우고 음주가 잦은 사람이 2~3주 이상 쉰목소리가 지속되며 인후통이 지속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내시경 검사와 치료 = 두경부암의 치료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강암의 경우 구강내의 암부위를 절제하고 필요한 경우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구강 내 재건술을 시행해 기능 및 외형을 회복해주는

형태로 시행한다. 수술 시행 후 항암 화학요법은 병리 소견에 따라서 추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다. 인두암은 구조상 수술이 어려운 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이 어려웠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더 많은 수술이 가능해지고 있다. 아직 비인두암에서는 방사선요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후두암은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면서도 후두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에는 후두를 모두 절제하는 후두 전 절제술을 시행해 후두의 중요한 기능들을 잃게 되었으나 현재는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파악해 후두 일부를 남기는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두경부암을 스스로 빨리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목이 붓거나 쉰목소리, 잘 낫지 않는 입안 궤양, 반복적인 코피와 코막힘,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이다. 조기 발견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시경 검진'이다. 1년에 1번씩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이나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 검사만 받아도 대부분의 두경부암을 잡아 낼 수 있다. 내시경 검사 시간은 5분 이내이며 마취, 통증없이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애연가라면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박준희(왼쪽) 이비인후과 교수가 두경부암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전남대 의대 옛 본관 건물 등록문화재 지정

1951년 준공 벽돌식 3층

전남대 의학박물관 건물이 근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전남대 학동캠퍼스에 위치한 의학박물관(옛 의과대학 본관)이 같은 시대에 건립된 대학 건축물과 비교할 때 한국전쟁 중에도 꾸준히 건축공정이 진행된 점, 모더니즘의 세련된 디자인, 벽돌을 이용해 쌓은 조적조 벽체와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천장과 매끄러운 연결 등 역사적·건축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등록문화재 제728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1948년 6월 17일 의과대학 본관으로 착공됐으나 6·25전쟁 발발로 늦어지다가 51년 6월 말에 상량하고 9월에 준공됐다. 약 1230㎡(372평)의 벽돌식 구조(연와조) 3층으로 지어진 본관에 같은 해 9월 17일 학장실, 교무과, 학생과 및 서무과가 이전했다. 현재는 내부를 리모델링해 전남

대의학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송호천 전남대 의학박물관장은 "전남대 의학박물관은 동문들의 활발한 기부와 기증으로 약 3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 중이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호남 의학사의 발굴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번 등록문화재 지정이 호남지역 근대 의학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역사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의학박물관 전경

전남대병원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강의 개최

보호자·시민 등 150여명 참석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희귀난치 질환 중 하나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한 건강교육을 최근 병원 5동 1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전남대병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희귀난치질환환자 및 보호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질환관리를 통해 환자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진이 강사로 나서, 환자 가족 및 보호

자에게 증상별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

이번 교육은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안내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송은송 교수의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와 관리'라는 강의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환자·보호자 및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채희중 기자 chae@k

조선대병원 제3중환자실 문 열었다

배학연 병원장 "양질의 중환자 치료 선보일 것"

19병상·간호인력 30명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이 외과계 중환자실을 신속하게 처치 및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제3 중환자실(외과계중환자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에는 박관석 조선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및 집행부와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해 제3 중환자실 개소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존의 제1중환자실(내과계)과 제2중환자실(신경계) 및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중환자실과 더불어 감속복합화되는 환자의 질병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환자실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제3중환자실(외과계)을 신설하게 됐다. 이로 인해 여러 외과계 중환자는 물론 중증 외상환자와 다발성

외상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새롭게 개소한 제3중환자실은 총 19병상으로 운영되고 간호인력 30명, 투입장비는 환자감시장치 19대,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장치) 4대, 제세동기 1대, 인공호흡기 9대, 자동주사주입기 13대, 자동수액주입기 13대 등이 투입됐으며, 전 병상에 전동침대를 설치해 중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배학연 병원장은 "제3중환자실 개소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많은 외과계 중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중증외상 환자와 다발성 외상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함으로써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더욱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